

기술강습회 10년을 돌아 보며



전 봉 수*

우리 학회는 지난 1990년 2월 5일부터 13일까지 한양대학교에서 9일간의 제1회 기술강습회를 개설한 이래 매년 2회씩 2~11일간의 일정으로 한 해도 거름이 없이 금년 1월까지 10년동안 모두 20회의 기술강습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학회 창립의 취지에 따라 전산구조공학의 새로운 기술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구조공학분야의 기술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술강습회를 개최키로 한다는 선언적인 캐치프레이스를 굳게 지키고 있어 강습회의 지속성, 강의내용의 충실함 및 과급효과 등에 있어 타학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기술강습회 관련업무는 1회부터 17회까지는 기술교육부의 전신인 연구부에서 맡았었고 18회부터는 기술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구부 당시 역대 회장단을 주축으로 9년간 9명의 이사(구민세, 강영진, 이성우, 고일두, 최완철, 신영수, 전봉수, 안주욱, 방명석)가 2년의 임기로 업무를 맡아 왔고 현 기술교육부에는 회장단과 4명의 이사(홍순조, 한상을, 신영석, 이희현)가 지난 1년동안 담당하고 있다. 기술강습회를 개최하기 위해 날짜잡기, 적절한 강좌 및 과목의 선택, 강사초빙을 위한 섭외, 교재원고 부탁과 독려, 강습장소 물색, 강습회 안내 및 홍보, 교재 인쇄,

강습회 관리 및 사후 마무리 등에 회장단과 담당 이사들의 숨은 노력이 지대하였다. 매회 강습회의 종료일엔 수료증 수여와 함께 수강생에게 과목별 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평가와 강습회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설문지 형식으로 받아 자체평가와 함께 차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여기서 우리 학회 10년사지와 기술교육부내 자료를 통하여 지난 10년을 돌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기술강습회는 적절한 수강생수, 양질의 강좌내용, 훌륭한 강사, 충분한 지원시설 및 냉정한 사후평가 등이 주요 핵심이다. 기술강습회를 찾은 수강생은 기술강습회가 20회를 거듭하는 동안 회별로 적게는 35명, 많게는 177명으로 평균 111명이 참가하여 연인원 2,223명이 수강하였다. 최근 수강생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개설한 강좌는 매회 2~4개씩 20회동안 토목분야 28개와 건축분야 29개등 모두 57개가 있었다. 우리 학회의 회원의 상당수가 토목과 건축분야에 몸을 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적절한 강좌의 배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이나 기계

* 성회원·(주)전우구조 대표이사, 본학회 부회장

등의 분야도 몇 강좌를 개설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강의는 40여개 과목으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주제별로는 17개 정도의 과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개 과목별로는 다른 횟수를 보면 구조물의 내진설계 과목이 7회로 가장 많았던 것은 국내 법규에 내진설계법이 채용된 시점과 맞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유한요소법 6회, 동적해석 및 설계 5회, PC/PS 구조 5회, 대공간구조 5회 등의 순이다. 또한 그 다음으로 구조해석프로그램 4회, CAD 3회, 강구조 한계상태설계법 3회, 내풍설계 3회, 지하구조물계측 3회, 좌굴이론 2회, 초고층건물설계 2회 등으로 집계되었다. 편성된 과목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보아 기술강습회 개설취지에 걸맞게 기초공학부분에 중점을 둔 강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목당 평균 수강생수는 24명에서 85명까지 폭이 매우 넓다. 그때그때의 실무사회의 수요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술강습회의 중요한 축의 하나인 강사진은 그동안 토목 및 건축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를 망라한 연 121명이 참여하여 매회 평균 6명의 강사가 강습회를 이끌어 왔다. 강의를 맡아 온 121명중 단 한 차례의 강의 기회가 있었던 분은 88명이었다. 2회 이상의 강의를 맡은 강사중에는 윤정방 교수가 10회로 출강 횟수의 으뜸이고 이동근 교수 9회, 3대 회장이신 권택진 교수 8회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현 회장이신 조효남 교

수와 방명석 박사가 함께 5회이다. 김상효 교수, 고일두 교수, 이승준 교수, 김승덕 교수, 김문걸 교수 및 이형우 박사가 4회의 출강을 하였다. 그리고 허영 교수, 이재영 교수, 서일교 교수, 김윤석 박사 및 한상을 교수가 3회씩 맡았었다. 초대 회장이신 최창근 교수외 15인이 2회의 강의를 맡아 주셨다. 위와 같이 강사 여러분의 열의와 헌신 덕분에 기술강습회가 한 회도 거르지 않고 면면히 이어올 수 있었던 바탕과 힘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기술강습회 장소로는 과기총 회의실에서 9회로 가장 많았고 한양대학교에서 5회, 연세대에서 2회 기타 4개 장소에서 각각 1회씩 개최하였다. 교통편의와 임대료 앙등 등의 이유로 대학교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한다.

이상 우리 학회의 기술강습회의 10년을 통계적인 측면에서 돌아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분석작업은 기술교육부의 몫일 것이다.

통계에 나타난 숫자와 내용보다는 그 뒤에 담겨진 의미를 찾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노정된 여러 문제점과 수강생들이 지적해 준 여러 각도의 보완 요청사항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하고 발전해야 할 계기를 마련할 토의의 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